

비주얼 커뮤니케이션분야 강자 라이트커넥트 한국지사 설립

출처. 서울신문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 4월 13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인 라이트커넥트가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뷰어시장에 진출했다.

라이트커넥트는 리셀러를 통해 솔루션 개발업체인 라이트헤미스페어의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기업이다. 6개국에서 22개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Deep Exploration' 소프트웨어를 아태지역에 독점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한국지사인 라이트커넥트코리아는 박수진(44) 대표이사가 이끈다. 박 대표는 관련 분야에서 18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됐다.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Deep Exploration'은 2D(2세대), 3D 기반의 CAD(컴퓨터지원설계) 또는 그래픽 콘텐츠를 뷰잉 파일로 생성하고 관리한다.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 한다. 즉 그래픽 콘텐츠의 관리 및 사용자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제품 개발과정에서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등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 솔루션은 보잉, 다임크라이슬러, 도요타, 록히드마틴, 나이키, 나사 등 세계 1000여개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트커넥트의 CEO인 즐라트코 스타카는 "가장 빠르게 최신 기술을 채택하는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지사 설립을 계기로 리셀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CTO 겸 창업자인 마크 토머스도 "라이트커넥트는 우리 제품을 아태 지역에 성공적으로 소개해 왔다."면서 "한국의 항공우주, 자동차, 중공업분야는 우리의 고객군과 일치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대표도 "라이트헤미스페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영업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기업 라이트커넥트, 국내시장 상륙

박수진 대표 선임과 함께 아시아 지역 세일즈,마케팅 강화

출처. 데이터넷 김선애기자 iyamm@datanet.co.kr 4월 14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라이트커넥트(www.right-connect.com)가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또한 MSC 소프트웨어, PTC 등에서 근무한 박수진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라이트헤미스피어(www.righthemisphere.com)'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판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6개국 22개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됐으며,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의 솔루션인 '딥 익스플로레이션(Deep Exploration)'은 2D/3D 기반의 모든 CAD 또는 그래픽 콘텐츠를 뷰잉파일로 생성하고 관리하여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PLM, ERP, CDM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과 연동해 그래픽 콘텐츠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딥 서버(Deep Server) 제품군과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어도비 플렉스(Adobe Fle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딥 액세스(Deep Access)를 통해 그래픽 콘텐츠 관리 및 사용자의 활용범위를 확대시켜 제품개발 프로세스상 효과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즐라트코 스타카(Zlatko Staka) 라이트커넥트의 CEO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최신 기술을 채택하는 한국시장의 거대한 잠재성을 알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한국시장에서 특별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한국 지사 설립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리셀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헤미스피어의 CTO 겸 창업자인 마크 토마스(Mark Thomas)는 "라이트커넥트는 아태지역에 우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해왔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제조 시장은 항공우주, 자동차, 중공업 분야에서 우리의 고객 산업군과 일치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제조업체들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을 시발점으로 아태 전지역으로 라이트커넥트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박수진 라이트커넥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영업지원 및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커넥트, 한국 지사 설립

출처. 뉴시스 강세훈 기자, 4월 13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라이트커넥트가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이트커넥트코리아 대표이사에는 MSC 소프트웨어, PTC에서 임원을 역임한 박수진 씨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관련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IT 업계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선점에 있어 최적임자라는 본사의 평가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최강자인 라이트헤미스피어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판권을 갖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 선두 기업이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딥 익스플로레이션'은 2D, 3D 캐드와 그래픽 콘텐츠 파일을 만들고 관리해 제조, 공학,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소프트웨어다. 또 '딥 서버'는 PLM,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과 연동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인다. 어도비 플렉스에 기반한 '딥 액세스'는 콘텐츠 관리, 사용자 활용 범위를 넓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강화한다.

박수진 라이트커넥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영업지원 및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업체, 라이트커넥트 한국지사 설립 뷰어시장 진출

출처. 케이벤처 4월 13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라이트커넥트(Right Connect / www.right-connect.com)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뷰어 시장에 진출한다.)

CAD/CAE/PLM 분야의 선두기업인 MSC 소프트웨어, PTC에서 임원을 역임한 박수진(朴 秀珍, 44세) 대표이사가 한국지사인 라이트커넥트코리아를 이끌게 된다. 박대표는 관련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IT 업계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선점에 있어 최적임자라는 본사의 평가이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최강자인 라이트헤미스페어(Right Hemisphere / www.righthemisphere.com)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판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6개국 22개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 선두 기업이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솔루션인 Deep Exploration은 2D/3D 기반의 모든 CAD 또는 그래픽 콘텐츠를 뷰잉파일로 생성하고 관리하여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PLM, ERP, CDM 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과 연동하여 그래픽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Deep Server 제품군과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어도비 플렉스(Adobe Fle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Deep Access를 통하여 그래픽 콘텐츠의 관리 및 사용자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제품개발 프로세스상 효과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라이트헤미스페어 제품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개발 비용 절감, 제품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보잉, 님크라이슬러, 도요타, 록히드마틴, 나이키, 나사 등 전세계 1,0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제조사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트커넥트의 CEO인 즐라트코 스타카(Zlatko Staka) 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최신 기술을 채택하는 한국시장의 거대한 잠재성을 알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한국시장에서 특별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한국 지사 설립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리셀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CTO 겸 창업자인 마크 토마스(Mark Thomas) 는 “라이트커넥트는 아태지역에 우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해왔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며 “한국의 제조 시장은 항공우주, 자동차, 중공업 분야에서 우리의 고객 산업군과 일치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제조업체들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라이트헤미스페어의 혁신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을 시발점으로 아태 전지역으로 라이트커넥트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이트커넥트코리아 박수진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국내 영업지원 및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뷰어 개발사 라이트커넥트, 한국 진출

출처. Zdnet korea 임민철 기자 imc@zdnnet.co.kr / 4월 13일

그래픽 콘텐츠 뷰어 소프트웨어(SW) 개발사 라이트커넥트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캐드 솔루션 업체 MSC 소프트웨어,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기업 PTC 임원 출신 박수진(44) 대표가 한국지사 라이트커넥트코리아를 이끈다. 박 대표는 IT 분야 경력이 18년 이상으로, 본사에서 그를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선점에 책임자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뒀고 시각 솔루션 기업 '라이트헤미스피어' 아태지역 판권을 가졌다. 6개국에 22개 리셀러가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는 지난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세워져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 연구개발(R&D)센터에서 뷰어 솔루션을 개발한다.

회사가 만드는 '딥 익스플로레이션'은 2D, 3D 캐드와 그래픽 콘텐츠 파일을 만들고 관리해 제조, 공학,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SW다. 또 '딥 서버'는 PLM,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과 연동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인다. 어도비 플렉스에 기반한 '딥 액세스'는 콘텐츠 관리, 사용자 활용 범위를 넓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강화한다.

박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국내 영업지원 및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을 시발점으로 아태 전지역으로 라이트커넥트사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미 보잉, 다임크라이슬러, 도요타, 록히드마틴, 나이키, 나사 등 전세계 제조사 1천곳 이상이 자사 제품들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즐라트코 스타카 라이트커넥트 최고경영자(CEO)는 "라이트헤미스피어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한국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국내 지사 설립을 계기로 리셀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관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토마스 라이트헤미스피어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창업자는 "한국 제조 시장은 항공우주, 자동차, 중공업 분야 등 회사 고객 산업군과 일치한다"며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커넥트 한국 지사 설립

출처. 프라임경제 박유니 기자 gkrdbsl11@nate.com / 4월 13일

라이트커넥트(Right Connect / www.right-connect.com)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뷰어 시장에 진출한다.

CAD/CAE/PLM 분야의 선두기업인 MSC 소프트웨어, PTC에서 임원을 역임한 박수진(朴 秀珍, 44세) 대표이사가 한국지사인 라이트커넥트코리아를 이끌게 된다. 박대표는 관련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IT 업계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선점에 있어 최적임자라는 본사의 평가이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최강자인 라이트헤미스페어(Right Hemisphere / www.righthemisphere.com)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판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6개국 22개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 선두 기업이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솔루션인 Deep Exploration은 2D/3D 기반의 모든 CAD 또는 그래픽 콘텐츠를 뷰잉파일로 생성하고 관리하여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PLM, ERP, CDM 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과 연동하여 그래픽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Deep Server 제품군과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어도비 플렉스(Adobe Fle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Deep Access를 통하여 그래픽 콘텐츠의 관리 및 사용자의 활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제품개발 프로세스상 효과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라이트헤미스페어 제품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해졌으며 제품 개발 비용 절감, 제품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보잉, 님크라이슬러, 도요타, 록히드마틴, 나이키, 나사 등 전세계 1,0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제조사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트커넥트의 CEO인 즐라트코 스타카(Zlatko Staka) 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최신 기술을 채택하는 한국시장의 거대한 잠재성을 알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한국시장에서 특별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한국 지사 설립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리셀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의 CTO 겸 창업자인 마크 토마스(Mark Thomas) 는 “라이트커넥트는 아태지역에 우리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해왔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며 “한국의 제조 시장은 항공우주, 자동차, 중공업 분야에서 우리의 고객 산업군과 일치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제조업체들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라이트헤미스페어의 혁신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커넥트코리아 박수진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국내 영업지원 및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커넥트 한국지사장 박수진씨

출처.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 / 4월 13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기업 라이트커넥트는 라이트커넥트코리아를 설립하고 MSC 소프트웨어, PTC에서 임원을 역임한 박수진 대표를 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리셀러를 통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업체 라이트헤미스페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6개국 22개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연구개발(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페어이 개발하는 딥 익스플러이션(Deep Exploration)은 2D와 3D 기반의 모든 CAD 또는 그래픽 콘텐츠를 뷰잉 파일로 생성하고 관리해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라이트커넥트 한국 지사 설립

출처. 전자신문 황태호 기자 thhwang@etnews.com / 4월 14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라이트커넥트는 13일 한국지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사장은 MSC소프트웨어·PTC에서 임원을 역임한 박수진 대표가 맡았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라이트커넥트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최강자인 라이트헤미스피어의 아태지역 비즈니스 판권을 갖고 있다. 현재 6개국 22개의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헤미스피어는 1997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돼 현재 미국 본사와 뉴질랜드의 R&D센터를 기반으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계 선두 기업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한국지사 설립이 아태 전 지역으로 라이트커넥트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대표는 “이번 한국지사 설립과 함께 라이트헤미스피어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한국 고객에게 소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